

GIST 졸업생 채성호 박사,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임용

- GIST 환경·에너지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 연구실(지도교수 김준하)에서 2020년 박사학위 받은 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 박사후연구원 거쳐 3월 1일자 서울시립대 부임
- 《Water Research》등 환경공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AI 기반 수처리 모델링 분야 연구 성과 다수 발표... "사회와 소통할 줄 아는 창의적·도전적 과학 인재 양성에 힘쓸 것"



▲ 3월 1일자로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조교수로 임용된 채성호 박사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환경·에너지공학과 졸업생 채성호 박사(지도교수: 김준하)가 올해 3월 1일자로 **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환경공학부 조교수에 임용**됐다고 밝혔다.

채 박사는 **환경시스템공학 분야에서 김준하 교수의 지도를 받아 2020년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**한 후, **2021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 물자원순환연구단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**해 왔다.

그는 GIST와 KIST에서 인공지능(AI) 등을 활용한 **해수담수화 및 하·폐수처리공정의 효율성 향상과 최적화 모델링 연구**를 진행하며 《Water Research》, 《Desalination》, 《Journal of Water Process Engineering》 등 **국제학술지에 주저자로서 다수의 우수 연구 성과를 발표**했다. 또한, 압력지연삼투 기술을 다룬 학술서적 《Pressure Retarded Osmosis: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Recovery》집필에 **공동 저자**로 참여했다.

이러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**2019년 교육부장관 표창**을 수상했으며, **2023년에는 대한환경공학회 신진연구자상**을 받았다. 2024년 9월부터는 **한국연구재단의 박사후 국내연수 사업의 연구책임자**를 맡았다.

채성호 박사는 “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학문인 환경공학 연구에 앞으로도 매진하여 **환경오염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환경 관리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자가 되고자** 한다”며 “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, **연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사회와 소통할 줄 아는 창의적·도전적 과학 인재**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